**데이빗 월커슨 목사님 2009년 4월 메세지 모음 입니다.**

****

2009년 4월 27일 월요일

여호와 삼마-주님이 거기 계시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은 여호와 삼마의 이름으로 알려져야만 합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겔 48:35).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확실하다. 내가 그를 볼 때 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주님의 다정한 임재를 아주 자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천들은 기도모임, 성경공부, 전도사역 등 선한 종교적 활동들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 활동들은 모두 칭찬받을 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크리스천들은 기도의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거나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결코 위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 적용하든지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든지 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신비롭게 감싸고 있거나 교회 예배 안에 임하는 어떤 영적 휘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단순하지만 능력있는 믿음의 여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크리스천의 삶에서 드러나든지 또는 회중 전체에게서 드러나든지 사람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또는, “이 회중은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

여호와 삼마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한 의로운 목사 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의롭고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예배 후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설교나 예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회중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주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24일 금요일

그분의 이름은 용서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미7:18-19).

우리의 주님은 전 세계에서 숭배하고 있는 모든 다른 신들과 어떻게 구별될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며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분명한 길은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입니다. 용서하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의 주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죄악과....허물을 사유하시며....”(미7:18).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확증되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느9:17).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번역은 “화목 제물이신 하나님” 또는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그분의 영광을 계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분의 이름에 대한 계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출34:6-7).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적인 표현을 제시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시86:5).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역경을 겪으며 이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23일 목요일

우리의 목자는 여전히 길 잃은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목자는 시험들, 시련들, 아픔들과 상처들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모든 양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렸다고 결코 우리의 목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걸으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유혹에 맞서서 지는 싸움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투가 무엇이든지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의 손아귀에 투항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당신은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무력하게 느끼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절망과 공포와 거짓말들을 홍수처럼 몰고 옵니다.

당신의 시험은 더욱 혼미하고 설명이 불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겪고 있든지 성령은 당신 안에 여호와 로이, 당신의 목자이신 주님을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사랑을 당신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시는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이름을 알고 네가 겪고 있는 일을 안다. 와서 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누우라.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사랑하는 팔 안에서 안식하라. 그렇다, 나는 만군의 주이다. 존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나에 대한 이 모든 계시를 알기 원한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나는 네가 여호와 로이의 계시를 갖기 원한다. 너를 사랑하고 돌보는 너의 목자로 나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온유함과 사랑으로 네가 너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도록 이끌 것이니 안심하기 바란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22일 수요일

나의 목자이신 주님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합니다. 이 안위하는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차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시는 다윗 왕이 썼고 이 중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첫 소절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부족함(want)이란 히브리 단어는 결핍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가 결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구절의 앞부분과 연결하면 다윗은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먹이신다. 그로인해 나는 결핍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다윗은 또 다른 주님의 특성과 성품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첫 부분의 히브리어 본을 그대로 읽으면 여호와 로이입니다. 이것은 “주님, 나의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로이는 단순히 온화하고 소극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양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만 하는 삯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풀밭과 물웅덩이를 가리키며, “저기 네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가서 가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 눈을 감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나 우리가 곤경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다른 길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견디고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큼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해내어 치유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아십니다. 때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쫓아오셔서 들어 올려 안식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눕히십니다.

여호와 로이-우리의 목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shekinah) 위해 우리로 그분을 따르게 하여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출애굽기 29:45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거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shekinah로서 “거주하다, 옆에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잠시 지나치는 임재가 아니라 영원한 임재, 절대로 떠나지 않는 임재를 나타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하나님의 임재의(shekinah)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처럼 우리 마음에서 없어져 사라지는 흔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영원히 새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주 근접하고 영원한 임재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롭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옆에 앉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부위를 강건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거하시고 영존하시는 주님의 임재.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21일 화요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 가구, 저축, 또는 당신의 소유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믿음 즉,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강한 믿음이 전부입니다. 아마 그것은 더욱 영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이 결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을 당신 보다 더욱 영적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어쩌면 외형적으로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며 “저기 의로운 자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워지는 것에 당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그분의 의를 당신에게 주신다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바로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아브라함)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실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롬4:22-24).

당신은 “나는 이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문제에 빠진 당신의 결혼 생활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죽은 친척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습관의 구덩이에서 그분이 당신을 건져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저주받은 과거를 지우시고 벌레가 먹어버린 그 세월들을 당신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불가능한 상황가운데 처하여 아무런 자원도 없고 소망도 없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실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당신에게 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셨고 만일 그분의 말씀 중 단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하늘이 녹아버리고 우주가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믿습니까?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20일 월요일

우리의 의이신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렘23:5-6).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비슷한 위기의 때에 선지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시드케이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이 의가 무엇이며 이 역할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며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롬4:3).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롬4:9).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갈3:6).

이 각 구절들은 아브라함이 진정한 의에 이르기 위하여 했던 한 가지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믿으매.

마침내, 바울은 의에 대해 주님이 내리신 정의를 제공해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롬4:20-22).

더 이상 명확히 할 수 없도록 성경은 밝혀 주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이라고 온전히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17일 금요일

하나님을 시험함?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섰을 때 사탄이 그분에게 속삭였습니다. “자, 뛰어내려라!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너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마4:6).

여기서 사탄의 교활함을 보십니까? 그는 성경에서 단 하나의 약속을 따로 떼어 예수님께 그분의 전 생애를 그것에 던지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라. 네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너를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상황에 그분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 뛰어내려서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네가 안착하도록 조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그것에 기초하여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닌지 계속 의아해 하기보다는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는 기적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마4:7).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히 무슨 의미로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이 그 본보기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심을 열 번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 번, 이 백성들은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은 이것을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답하시며 바로 이 동일한 구절, “하나님을 시험하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것이 심각한 죄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총체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것이라는 많은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지난 날 우리 삶속에서 그분이 여러 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간증,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고유한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과거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언으로 충만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16일 목요일

파기 불가한 약속

하나님은 이 지상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파기 불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짓밟고자 할 때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사52:6)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네가 극심한 시련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와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내가 ‘나는 예수, 네 구원자니라.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심한 폭풍이 부는 가운데 배 안에서 격한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마14:26). 이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14:27).

나는 예수님이 왜 “안심하라(Be of good cheer (KJV)”는 이 특정한 말을 쓰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말을 쓰셨을까요?

Cheer 라는 말은 “안도하다, 행복하다, 두려움에서 놓여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곤경에 놓여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자신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네가 폭풍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기록되었으되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사52:6). 이제 내가 너의 폭풍가운데 너에게 왔다. 나니 예수라. 이 모든 와중에 여기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곤경의 때에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십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15일 수요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함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항상 원하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은 보잘것없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광야에 고립시켰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을 시험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증언하기 바라셨습니다. “나는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역경이든지,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것들조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모든 시험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항상 나를 이끌고 나오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주리게 하시며”(신8:3).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의 시련을 연출했다. 마귀가 한 일이 아니다. 네가 필요로 했던 모든 빵과 고기를 내가 내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시라도 하늘에서 내려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네가 받기를 기다리며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잠시 보류하였다. 잠시 동안 그렇게 하였다. 나는 네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위기의 정점으로 너를 이끌어 가기 원했다. 네 지혜가 동이 나는, 인간의 무력이 드러나는 지점을 네가 경험하도록 허락했다. 그곳은 나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기적이 요구된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전능하신 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욥은 선언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특히 그가 이 말을 했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험 중의 하나를 겪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자녀를 모두 잃었고 그 후 자신의 부와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도 짧은 시간에 일어났기에 완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이 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이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실 만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연출되었습니다. 욥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8-10).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견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길을 아신다. 지금 나의 주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 그분이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된 나를 이끌고 나오실 것임을 확신한다. 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제련되고 정결케 되어 나올 것이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14일 화요일

여정을 위한 힘

지구상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사역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거나 주교에게서 안수를 받거나 교단에서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역에 대한 진정한 부르심의 유일한 원천을 드러내 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전1:12).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 되이 여기셨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도의 개종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있은 지 삼 일 후에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고통의 사역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행9:16).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고후4:1)라고 말할 때의 그 사역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고통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갖는 사역이라고 명백히 밝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사역에 대해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시험가운데 그에게 신실하실 것과 그를 능하게 하실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능하게하다 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여정을 위해 충분한 힘,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이 사역에 끝까지 신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분으로 인해 나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간증거리를 갖고 나올 것이다.”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에 의해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에 의해 감화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영적인 것들로 채우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종들은 그들의 눈을 순전하고 거룩한 것에 고정시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양질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그들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시며 이러한 성도들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렵고 폭발적인 고통에 대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며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마음이 낙담하고 붕괴하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로 인해 부서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 그들은 전혀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안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6:3-5, 10). 우리는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함으로써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디서 저런 평강을 찾았을까?”라고 묻게 만들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를 제시해 줍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13일 월요일

자족

자족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크나큰 시험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9:15). 바울이 이 임무를 처음 받았을 때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9:20)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조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기 불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매달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사역하는 것, 즉 감옥에 갇힌 죄수, 선원, 강둑에 있던 여인들 몇 명에게 간증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 걸친 임무를 받았으나 일대일로 증거 하는 일을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가하는 듯 보이는 젊은이들에 대해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다니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동안 바울은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의 복음에 관하여 다투었던 사람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보고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포기한 사람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지만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전6:6,8).

오늘날 세상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제 너는 생의 종말에 이르렀다. 그런데 너는 저축도 없고 투자해놓은 것도 없다. 네 재산은 갈아입을 옷이 전부이다.” 나는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 지 압니다. “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말하건대 나는 승자이다. 나는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 올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이제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생애에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다.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다. 이 현재의 모든 고통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에 비교할 수 없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10일 금요일

포기로 가는 길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 가는 높은 말에서 우리를 떨어뜨림으로써 포기의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문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해 말을 타고 자기 확신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눈부신 빛이 내려왔습니다. 바울은 땅에 굴러 떨어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말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9:4).

바울은 자기 삶에서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나 직접 체험하여 얻은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늘로 부터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9:5). 이 말씀들은 바울의 세상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며 놀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여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Trembling and astonished, [Paul] said,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KJV)(9:6)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음}. 바울의 개종은 성령의 극적인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 포기의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을 알고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육 안에서 한 일은 모두 배설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바울은 이것, 즉 “그리스도를 얻”(빌3:8)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야망도 없었고 그의 인생을 추진하는 다른 원동력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공의 척도에 비긴다면 바울은 철저히 실패한 자입니다. 그는 아무런 건물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식은 다른 지도자들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는 다수의 청중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 돌을 맞았습니다. 그의 주제가 무엇 이었냐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사역이나 성취한 일 또는 몇 사람을 개종시켰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성공에 대해 단 하나의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졌는가? 우리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였는가? 동료의 압박에 굴하여 무리를 따라갔는가 아니면 오직 주님의 지시를 구했는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이 세미나, 저 세미나를 찾아 다녔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족을 찾았는가?

나는 한 가지 야망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만을 더욱 더 말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말하고 행하는 아무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그분의 뜻을 행하므로 나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9일 목요일

포기한 인생

“포기하다.” 이 단어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문자 그대로 포기하다 라는 말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단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유물, 능력, 목표, 당신의 생명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포기한 인생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포기한 인생이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생명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통제, 권리들, 능력, 방향, 당신이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처리하시도록 온전히 그분의 손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포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6:38).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8:50).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치심 없이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8:28-29).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삶은 지구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포기하셨다.” 하지만 포기한 인생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무로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10:17-18).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라. 자기 포기의 행위는 온전히 내 권한 안에서 하는 일이다.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기로 선택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생명을 내려놓을 권리와 특권을 주셨다. 그분은 또한 이 잔을 지나가고 십자가를 피하는 선택도 주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께 온전히 포기하기에 그것을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권리, 즉 포기한 인생을 선택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희생하고 우리 생명을 그분께 돌려드리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은 값없이 우리에게 젖과 꿀과 과일로 가득한 약속의 땅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만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할 지도 모릅니다.

진실인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 충만하게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그분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8일 수요일

어떤 위기든지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위기가 닥칠 때는 기도와 믿음으로 당신 자신을 세울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부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나타내는 심령으로 최근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스물 네 살 난 그들의 딸이 친구와 함께 놀러 나갔는데 한 미치광이가 이 두 젊은 여자들을 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부부는 쇼크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친구와 이웃들은 “어떤 부모가 이런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의문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내로 흐를 즈음 성령이 이 슬픔에 잠긴 부부에게 초자연적인 위로를 가져오셨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런 날들이 뒤따랐고 이 애도하는 부모들은 하나님께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내내 그들은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체험했습니다.

이 부모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평온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배후의 목적 없이는 아무 일도 그들에게 절대로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줄곧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식에도 그들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모와 그들의 다른 자녀들은 살인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부부는 어떤 일을 직면하든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힘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곧 그들은 이 부부에 대해, “이들은 기적이다. 이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시46:1-3).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7일 화요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행4:13).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며 서있었고, 방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옆에 서있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혈과 육을 입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회당의 지도자들은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행4:14)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4:23).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두 사도들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4:29-30). 그들의 기도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확신으로 말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체념의 표정을 보았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윙크하며 이렇게 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이걸 모른다. 그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할 뿐이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와 그동안 내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었지.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감방에서 기도했을 때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었다. 여기를 나가자마자 우리는 다시 그분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남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낸 시간에서 떠나올 때 그분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6일 월요일

거룩한 담대함과 영적 권위

예수님과 함께 있을수록 그 사람은 순수함, 거룩함과 사랑의 면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순수한 삶이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크나큰 담대함을 조성해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잠28:1). 이 구절에서 담대하다는 말은 “안전한, 자신있는”의 의미입니다. 회당의 통치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할 때 바로 이런 유형의 담대함을 보았습니다(행4:1-2참조).

이전 장에서(행3장) 베드로와 요한은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지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일은 성전 주위에 큰 소요를 일으켰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저지하기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체포하여 공중 재판에 넘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회당의 지도자들을 만났으나 성경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건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장면이 매우 장엄하고 예식적이 되도록 연출했을 것입니다. 먼저 고위관리들이 엄숙하게 벨벳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친척들이 뒤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들이 점잔빼며 들어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재판 석을 향해 뻣뻣하게 복도를 걸어 들어와 옆을 지날 때 모두가 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자, 이제 이 회의를 시작하자. 내게 강단을 넘겨주고 결박을 풀어주기만 하여라. 이 모임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것으로 볼때 그는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터질 듯한,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의 안에서 담대하게 서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숨길 것이 없고 누구 앞에든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3일 금요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장면을 봅니다. 성전 문 바로 앞에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한 발자국도 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행3:6). 그리고나서 베드로는 그 거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3:6). 그 즉시 이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껑충껑충 뛰고 소리치며 성전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앉은뱅이 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성전 지도자들이 “이르러....전함을 싫어하”(행4:1-2)였습니다. 이들 신분이 높고 유력한 자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4:7). 베드로는 성령으로 담대해졌습니다. 그가 이 지도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너희가 삼 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분이 이 사람을 고친 능력이시다.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너희는 길을 잃게 될 것이다.”(4:10-12참조).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4:13). 이 구절에서 알다(took knowledge, KJV)라는 말은 “구별되는 어떤 표시로 말미암아 알려지다”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구별 지었던 이 표시는 무엇 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닮은 모습과 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분을 더욱 더 충만한 분량으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를 더 잘 알고, 그분께 더 가까기 나아가고, 그분의 길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 계속 부르짖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엡4:7: 롬12:3참조). 바울이 말하는 이 분량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정된 분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지식에 대해 정해진 분량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 처음 분량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용서받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좋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 한 시간 동안 교회 예배를 견뎌내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지 방식”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오직 최소한도의 요구 사항만을 드립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음과 같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어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2일 목요일

요셉 일단(一團)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자기의 삶이 위대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에 불타던 그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그 비전은 한낱 몽상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요셉의 인생은 역경과 불공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요셉이 어느 정도 회복된 듯 보였을 때 그는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발당하여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내내 요셉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 년 간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바로의 집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결국 요셉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진실로, 모든 세대에 있어 주님은 요셉 일단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이렇듯 헌신된 종들을 택하여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굳세게 하기위하여 오랜 세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요셉이 이것을 견뎌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시105:17-19).

오늘날에도 주님에게는 요셉 일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분이 감동시키고 부르신 경건한 남녀들입니다. 그들은 명예나 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름을 이행하기 위해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생명이 그분의 왕국에 속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창45:7-8).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여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역경을 지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견뎌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형들이여, 주님은 당신들을 섬기라고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나에게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을 그분의 보존의 은혜 아래로 이끄시려고 주님이 모든 일을 연출하셨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요! 한데, 여기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보존하셨고 미래에도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배후에 그분이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 하늘의 사역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오직 단련되고, 시험받고, 확증된 신자만이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4월 1일 수요일

목적이 있어 보존 되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시16:1). 이 구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지키다(preserve)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약해 말하면 “가시로 된 보호벽 울타리로 내 주위를 둘러주십시오. 나를 보호하고 지켜 주십시오. 나의 모든 행동, 들고 나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주신다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그의 모든 길에서 도움을 받고 보존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 받은 사람은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시121:4-7).

동일한 히브리 단어 지키다가 이 구절에서도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다윗은 하나님의 신성한 울타리, 초자연적인 보호벽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눈은 너를 보고 계신다.”

진실로 주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쇼핑할 때도. 그분은 우리 차 속에서, 버스나 지하철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모든 가능한 무기들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번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토록 우리를 보존하시는 데 뜻을 두셨을까요? 모세의 말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신6:24). 모세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모든 방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막에서 치명적이었던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주셨고 옷이 해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과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증언은 이것 뿐 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만 광야에서 죽음으로 생을마감하기 위해 보존 받고 보호받았을까요?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Posted by David Wilkerson